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ICT 산업 동향과 한국의 진출 유망 분야 조사

- 김학기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센터)

I. 개요

- 출장지역: 러시아 (모스크바), 우크라이나(키예프)
- 출장목적:
 -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양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제 “한-러시아·CIS 산업협력 국제 공동사업:IT 산업”의 일환으로 진행
 - 사업 대상국인 주요 3개국(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중 경제규모가 크고 IT 산업이 일부 발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2개국에 대해
 - 공동 연구자 및 기업인들과의 면담. 관련 보고서 내용 수정 보완 및 관련 정보 수집, 간담회 개최

- 출장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 김학기
- 출장기간 : 2011. 12. 11(일) ~ 2011. 12. 17(토)
- 출장 일정 및 방문 기간

기 간	주요 일정
2011.12.11	-인천출발(11:00) - 모스크바 도착
2011.12.12	- KOTRA 모스크바 사무소 방문 - 모스크바 대학 인큐베이터 센터 방문
2011.12.13	- 삼성전자 방문 - LG전자 방문 - 모스크바 출발, 우크라이나 키예프 도착
2011.12.14	- KOTRA 우크라이나 키예프 사무소 방문 - 우크라이나 기술이전센터 방문
2011.12.15	- 대우전자 방문 - 대우통신 관계자 면담
2011.12.16	- 키예프 출발(10:35) - 모스크바 도착(14:10) - 모스크바 출발(17:35)- 인천도착

II. 방문 기관 및 주요 면담 내용

1. 모스크바 주재 KOTRA 사무소

개요

- 방문 일자 : 12월 12일, 오전
- 면담자 : 서기원 부관장, 김동묘 과장(시장조사담당), 장윤성 과장(투자담당), 오명훈(총무)

주요 면담 내용

-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IT 진출 최근 동향, 조사 요청 동향, 러시아의 IT 관련 정책 등의 동향 파악. 관련 자료 협조 요청

- 우리 기업들의 IT 부문에 대한 투자 상담이나 관련 정보 요청이 활발하지는 않음.
 - IT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로 틈새시장에 대해서만 일부 가능성이 있음.
 - 소규모 IT 관련 정부주도의 사절단 방문 외에는 중소기업의 개별적인 진출 문의 등은 거의 없음.

- 러시아 정부가 IT 등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펀코보 특구 정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음.
 - 인프라 등이 아직 충족되지 못해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림. 기반 시설 등의 부족과 더불어 지지부진한 진행속도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자칫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언론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해외 인력이나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 스펀코보 특구에 대해서는 주로 대기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중소기업들은 거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러시아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도 거의 유명무실함.

- 러시아 IT 시장은 첨단 제품들의 전시장 같은 곳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음.
 - 첨단 기술 제품은 시장 진입이 가능하겠지만 기존의 진부한 제품들은 들어설 여지가 없을 것임.

- 러시아에는 전자상거래가 경우 일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여건이

충분하지 못해 활발하지는 못함.

- 택배나 소포 등 배달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나 배달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님.
- 러시아는 빙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오토바이 택배 여건은 좋지 못함.
- 외국 업체들도 러시아 택배 사업 진출 지도
- 우리나라 현대택배도 시장은 검토,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시장 진출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진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일 것임.
- 러시아 부유층을 상대로 한 상거래 사이트들 존재함.

○ 러시아도 케이블 TV, 홈쇼핑 등과 관련한 시장 시도한 바 있음.

- 우리나라 업체도 러시아내 TV, 홈쇼핑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바 있으며 러시아 업체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
- 홈쇼핑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필요하나 러시아내 신용카드 사용은 아직 대중화까지는 거리가 있음.
- KT, LG CNS 등 시장 조사
- 교통분야, 교통카드 시스템 공급 등 시장 진출 타진

○ 러시아 IT 현대화 사업은 계속 진행중

○ 올림픽 개최지인 소치의 IT망 구축사업은 유럽쪽에서 시장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KT는 뒤늦게 사업 시작해서 어려움이 있음.
- 블라디보스톡 APEC 회의 관련 사항은 잘 모름.
- 러시아의 20대 IT 기업들은 CIS 지역에 진출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비해서는 기술이 앞서있음.
- 우크라이나 기술자들도 러시아 회사에 참여하여 일하는 경우가 있음.

2. 모스크바 대학 과학기술 파크, 인큐베이터 센터

개요

- 방문 일자 : 12월 12일, 오후
- 면담자 : Yuri Mitin 외 인큐베이터 입주 10여사 관계자
오일·가스 관련 1개사, ICT 관련 4개사, 전자상거래 관련 2개사,
DNA 관련 1개사

주요 면담 내용

- 주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면담 진행

○ 전자 상거래

- 식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는 러시아내 슈퍼마켓이 워낙 많아서 식료품 거래는 어려울 것임.
- 러시아 ICT 분야 인큐베이터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Bio, Nano, 신에너지, 에너지 합금, 신물질, 오일·가스 등임.
- 러시아에 투자할 경우 유망한 분야와 접촉 방법
 - Bio +IT, e-Commerce, Nano tech 분야가 경쟁력이 있을 것임.
 - 관련 분야 접촉은 Russnano, 나노분야는 과학기술파크, 전자상거래 등은 Yandex, Wicky market, mail group, Yury Miller 등이 유망할 것임.
 - 직접투자는 어려울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게 유리할 것임.
 - 중소기업의 대 러시아 IT 분야에 대한 적절한 투자 규모는 초창기 1개 프로젝트 당 50만 ~100만 달러가 적절할 것임. 예를 들어 Genotk 인큐베이터 사업에 50만 달러 투자함. 초기에 20만 달러 투자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50만 달러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러시아 정부 IT 사업 발주는 외국기업도 참여할 수 있음.
 - 개인기업 정부 수주는 50% 가량 될 것
 - 조달청 공식사이트인 zakupki.gov.ru 같은 정부사이트 구축 등은 외국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움이 있음. 합작 투자 형태로 참여가 가능할 것임.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러시아 자체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분야인가?

- 이제 2년 정도밖에 안된 시장이며, 따라서 시장 규모도 매우 작은
- 외국 기업들은 당연히 참여가능하다. 구글, 안텍스 등에도 참여하고 있음.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의 3국 관세동맹은 IT 분야에 대한 영향은 IT 컨설팅 등은 별로 크지 않을 것임.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세계 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CIS 역내 소규모 시장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음.

-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가 구축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영향을 없을 것이라 생각됨.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임.

- WTO 가입 영향의 경우에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러시아 시장이 보다 개방되고 외국기업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시장이 커져서 외국기업들의 혜택도 커질 것으로 생각됨.

○ 러시아 정부의 2011년도 IT 부문 수행 완료 예정 사업들의 실현 정도를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음.

- 공공서비스 확보와 정부기관 활동 감시를 위한 서비스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불가능
- 전자서명 신뢰도 확보를 위한 단일구역 설정	60
- 종합전자카드 인프라 구축 및 발전	불가능
- 국민현황 파악을 위한 단일 시스템 구축(전자 등록)	50%
- 국가서비스 전자결제 실현을 위한 운영 및 기술적 측면의 인프라 구축	30%
- 컴퓨터 정보와 기능이 인터넷 서버처럼 사용자에게 전달이 가능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처리 플랫폼 구축	50%
- 국가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40%
- 디지털 콘텐츠 확산을 위한 국가 정보통신 플랫폼 구축	30%
- 러시아 문화유산과 전통 대중화를 위한 단일 인터넷 포털 구축	70%

○ 푸틴 대통령 취임시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 중시하여 IT 부문 쇠퇴 가능성 여부는

- 그렇다 하더라도 IT부문은 국가의 거대한 프로젝트로 계속할 것이며, 스펀코보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내 경제 안정 정책을 취할 것이므로 IT 부문은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스펀코보 프로젝트와 혁신 프로젝트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 빠른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모스크바대학 인큐베이터 센터도 스펀코보의 파트너로 직접 관여하고 있음. 3~4년 사이 펀드 구성 기회도 많이 생기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 긍정적임.
- 모스크바 대학 인큐베이터는 학생 경연대회를 거쳐 혁신 아이디어 있는 학생들을 심사단(모스크바 대학, 벤처에이전트, 펀드, 정부 관계자 등)이 심사로 선정. 인큐베이터에 참여하면 1년간 컨설팅, 투자 유치 등 지원
- 과학 파크와 개인기업도 설립이 가능하며, 인큐베이터 참여자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있음.

3. Samsung Electronics Rus Company

- 개요
- 방문 일자 : 12월 13일, 오전
- 면담자 : 김대형(Business Controller (Director, CIS HQ & Semiconductors), 김남식(CIS HQ Logistics Dept)
- 주요 면담 내용
- 러시아 IT 관련 제조업 거의 없음. 러시아는 경쟁력 또한 거의 없음.

-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있지만 응용력 떨어짐.
- 스포츠보 프로젝트 개발 속도가 너무 느림. 삼성도 지켜보고 있음.
- 시스템 아웃소싱 관련 등
 -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시 러시아 회사에 위탁할 경우 시간이 너무 소요. 한국 관련 회사에서 직접 파견 나와 구축
 - 한국에서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시설 구축사업이 1년 이상 소요. 지금 사무실 6개월 전 입주.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러시아인들 일 진행속도가 너무 느려 중소기업들 진출시 어려울 것
- 전자상거래 관련
 - 형식은 전자상거래이지만 물건 받고 현금 지급하는 형식
 - 국가가 방대하여 물류 트럭 서비스, 위치정보 서비스는 일부 되고 있지만 전자 입력 방식이 아닌 수기 방식으로 진행
- 삼국관세동맹 영향
 -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해당 국가들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별로 영향 없음.
 - 노동이동까지 포괄하는 유라시아공동체 구축은 수월하지 않을 것임.
- 한국에서 생산하여 러시아에 수출하는 물량은 많지 않음. 중국에서의 생산 물량은 일부 수출 통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 통관 문제 등은 환율이나 관세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음.

- 러시아 공장에서의 생산 물량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에 공급

○ 소프트웨어 개발력

- 스마트폰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로컬업체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있음.

○ 시스템 구축 능력

- 러시아 LTE망 구축 단계. 대부분 외국업체가 진행하고, 로컬업체는 인력 지원 수준

○ WTO 가입

- 제도상 일부 영향 있겠지만 실효성 있는 영향 부분은 많지 않음.

○ ICT 관련 중소기업 진출 가능성 있는 분야

- 폐가전 처리, 환경 분야, 재활용 부분이 일부 가능성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러시아 진출 가전업체들은 러시아 업체에 폐기물 처리 등을 위탁. 그러나 어떤 시스템에 따라 정리되는지 알지 못함.

- 러시아는 기초 연구 분야가 발달되어 있지만 그것을 사업 비즈니스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음.

○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음.

- 러시아내 자체 생산체로 바뀌면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여력은 거의 없어짐.
 - 특정 부문에 특화시켜야만 가능할 것이며, 물류업체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중소기업체가 감당하기에는 러시아의 제도적 법률적 환경이 어렵고, 현지 기업과 합작을 통해 진출한다 해다 현지 업체 통제가 매우 어려움.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업체 관리에 애를 먹고 있음.
 - 간단한 공장 하나 짓는데 수년이 소요되며 중소기업체들은 그런 초기 단계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음. 사회주의적 환경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
- 자동차, 전자 관련 외국 업체들도 현지 생산하고, 나머지 모두 자체적으로 수입하여 소규모 오퍼상을 통한 수출은 거의 불가능
 - Bio + IT 분야 가능성
 - 차세대 칩으로 아직은 연구 단계 수준
 - 러시아 측은 상용화에 더욱 문제가 있어 가능성은 아직 먼 단계
 - 기존 기술 경쟁에서 선진국에 뒤져 있어 새로운 영역인 Bio + IT 분야에 관심을 돌려 외국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기존의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
 - 루스나노 등 투자 펀드도 일부 만들어 놓고 있음.
 - 자본 도입뿐만 아니라 기술도입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상용화측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크게 나은 것도 없을 것임.

- 물류측면에서도 교통, 법규 등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며, 사회전반에 걸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투자의 경우 신중을 기해야 됨.

4. LG Electronics RUS Moscow Branch

개요

- 방문 일자 : 12월 13일, 오후
- 면담자 : Maxim Chun (Director TV BU Marketing)

주요 면담 내용

- 부품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일부 부품 조달 여건이 열악
 - 예를들어 금형부분 클러스터 조성되어 있지못해 가까운 기업이라 해도 50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경우가 많음.
 - 구미공단 같은 방식으로 모여있어야 효율적. 금형, 프레스 업체 등이 참여가능하다면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 물류부문도 특화되어 있지 못함.
 - 창고업체 등 중소기업 진출가능성 있을것임.
- IT 부문 소프트웨어 등 실력은 갖추고 있으나 상업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 대형업체가 많지 않음.
 - 게임부문의 예를들어 보면 개인 아이디어는 잘되어있음. 그러나 유럽과 비교할 때 유럽의 10여년전 모습과 비슷한 것으로 보임.
- 나노산업 관련

- 기본 실력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므로 일부 가능성이 있을 것임.
- 기초 분야를 응용화시킬 수 있다면 체계적일 수 있을 것임.
- 스폴꼬보 특구 문제
 - 지난해까지 정부가 투자도 하고 건물도 짓는 등 진행
 - 연속성 측면에서는 문제 있을 수 있음.
 - 정책은 계속되겠지만 결국은 편당 문제가 될 것임.
- 아웃소싱
 - 기업별로 시스템에 특화된것도 있음.
 - 현지 아웃소싱업체의 실력은 놀랄 정도라 함.
 - 게임산업 관련 한국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을 것.
- 전자상거래 관련
 - 경기를 많이 타는 분야로 예측이 다소 어려운 상황
 -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임.
- 삼국 관세동맹,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영향
 - 내수 생산 기반 있는 관계로 크게 나아질 것도 없을 것으로 봄.
 - 현지 생산체제인 경우 별로 영향 없을것임.
 - 후발 업체의 경우 어려움 있을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등
 - 법적문제, 불법복제 문제 등과 연관시켜 검토해야 할 것
 - 러시아에서 프로그램 작성하여 상용은 미국시장 등에서 하는 방법

등 검토 가능

- 아직은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형 서비스만 하고 서버는 운영하지 않는 상황

○ 바이러스 백신 개발 등 프로그램 동향

- 러시아 업체들은 세계적 업체로 2-3위 권 될 것임.

○ 한국 IT 업체들의 러시아 진출 가능성은

- 객관적이고 운영상 실증된 것들만 가능할 것
-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 소요 프로그램들은 정부입장에서 이미 검증된 것만 도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 LED 부문 진출 가능성

-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절감 강조 등
- 셋팅 부문등 중소기업 진출 가능성 있음. 오히려 대기업이 진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LTE 분야 등은 러시아에서 아직 특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음.

○ 가전 폐기물 처리 문제

- 대형업체에 위탁하고는 있지만 말뿐인 위탁임.
- 전자 서비스 부분 위탁하면 재하청 형식 등으로 진행,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어려움.
- 대부분 정부의 관련 법이나 환경문제 등과 결부되어 쉽지않음.

○ 인터넷 연결과 속도

- 아직 느린 편. 중간 중간 망도 구축안된곳도 있음.
- 관련 정바는 대부분 한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인터넷 부분은 아직도 많은 진출 가능영역 있을 것. 즉. 러시아는 아직도 유럽의 10여년 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저런 분야 진출 가능의 여지가 있을 것임.

5. KOTRA 우크라이나 키예프 사무실

□ 개요

- 방문 일자 : 12월 14일, 오전
- 면담자 : 최현필 관장, 김하민 부관장

□ 주요 면담 내용

- 우크라이나는 한국측에서 너무 관심 떨어져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 가진 국가
 -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해서 이웃국가들로 판매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관심이 적은 상태
 - 그 이유는 제도상의 문제가 가장 클 것임.
 - 외국인 투자에 대해 수탈 등과 결부지어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임.
- IMF 구제금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우크라이나 경제 전반이 좋

지 않은 상황

- 정부 재정 심각한 상황
- 2012년 총선문제, IMF의 공무원 감축 요구 등 복잡한 상황
- 정부 재정문제로 정부의 IT 분야 발주된 각종 프로젝트 사업들 사실상 무산
- 시스템 통합 부분 수요 파악 결과 재원 문제로 발주 어려운 상황
 - 의료부문도 열악
 - 교통 통제 시스템의 경우 계획은 있지만 자금문제로 추진 어려움
- 전자상거래 문제
 - 향후 유망하겠지만 현재의 여건은 많이 부족한 상황
 - 은행 부실로 신용카드 거래가 매우 위험. 국가에서 은행 재원 그대로 가져가기도 하고, 고객 예탁금을 수시로 무단 활용하기도 함.
 - 지하경제 규모가 4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음.
-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 시스템
 - 진행은 되고 있지만 중간 물류 시스템 없이 판매자가 직접 배달하거나, 제3자에게 부탁해서 전달하는 초보적 배달 시스템
- 홈쇼핑 관련 국내업체들 검토는 진행한 바 있지만 사업은 미루고 있는 상황

- 우크라이나는 수학 실력이 뛰어나고 기초 지식 많아 프로그램 등은 잘 수행. 그러나 제도 등의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함.
 - 삼성전자 R&D 센터 운영중
 - 그러나 지적재산권 약하고, 불법 거래가 많음.
 - 중요한 프로그램 위탁은 노출 문제 등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
 - 해외로의 인력 유출도 계속되고 있음.
 - 전문 인력 중간에 데려가는 일도 수시로 발생

- 제조업 관련 인허가 문제가 매우 복잡
 - 전자 정부 구축 관련 시스템도 일원화되어 있지 못함.
 - 3G 전파 인허가 절차 매우 복잡. 정부 부패문제와 결부되어 있음.

- 정치권의 경제 부문별 이권 배분과 부패
 - 혁신 기업들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지만 정치인들이 기업 하나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
 - 우크르텔레콤 사례 - 외국에 매각되었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 소유
 - 러시아의 경우 수직적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 대화상대가 정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못하여 접촉해야 하는 관리자 수도 매우 많은 상황

- 합작투자에도 문제가 많음
 - 상대방 지분을 강탈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 관련 법률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다가 법률이 매우 복잡함.

- EU와의 통합과 FTA 문제
 - EU와의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FTA만 체결되어도 상황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

- 통관문제도 심각
 - 세관의 부패, 복잡한 세법
 -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
 - 관련 세금 모두 지불했음에도 통관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발

- 노동법도 매우 부정적
 - 구소련시절의 관행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
 - 노동자 권리 강해, 5~6년의 무급휴가가 가능한 상황

- 한국 진출 가능성
 -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지만 재정 문제로 지체
 - 전자 교육 관련 부문도 교육 경쟁 심하지 않아 시장은 한정됨
 - 3G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어 LTE 등은 아직 시도되지 못함.
 - 전자책의 경우 러시아나 유럽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

- 리사이클링 시스템 잘 갖추어지지 못함.
 - 분리수거도 문제

- 관련 자료 입수에도 많은 어려움
 - 조사기관 자료는 매우 고가

- 국내 기업들의 요청
 - IT 쪽 요청은 거의 없었음.

 - 항만 통제시스템은 독일 업체
 - 지적공사 시스템 보급 안됨.
 - 등기법, 토지법 등도 매우 복잡

- ODA 등을 활용하여 수출과 결부지어 사업 진행하면 아프리카 등
 지보다는 일부 사업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가

성과 있을 것

6.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Network (NTT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Youth and Sports of Ukraine

개요

○ 방문 일자 : 12월 14일, 오후

○ 면담자 : C. Egorov, A. Gamzyan

주요 면담 내용

○ 학교 안내, 기술 이전센터에 대한 설명

- 관련 사이트 구축 등
- 전자산업 관련 교육도 많이 진행
- 우크라이나 최초 PC 개발 등 역사 지님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도 운영
- nttn.org.ua 에 잘 소개되어 있음.
- 우크라이나 IT 파크에 대한 소개. 기술 관련 정보도 한국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

○ Bio + IT 관련 실력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뒤지지 않는 상황

- 구소련 시절의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유사

○ 상호 협력 강화 제안

- 정부간 협력 외에 연구소간 협력 강화 희망
- 연구소간 협력 MOU 체결 기대
- 시장, 투자 정보 등에 대해 서로 정보 교환 가능할 것
- 지속적 협조 희망

7. Daewoo Electronics DEME FZE

개요

- 방문 일자 : 12월 15일, 오전
- 면담자 : Seo O Seok(Chief Representative)

주요 면담 내용

- 사업 여건 전반적으로 좋지 못함.
- 디스플레이 분사 등으로 일부 판매 부문만 담당
 - 폴란드 TV 공장 폐쇄 영향도 있음
- 냉장고, 세탁기 등은 현지 딜러 통해서 판매
 -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많지 않음.
 - 가격만 적당하다면 딜러 통해서 매각하는데 어려움 없음
-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현지 가까운 곳에 진출
 - 수출 보다는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 가격 경쟁력 있는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로 진출,
 - 물류비 절감(한국에서 키예프까지가 4,000 달러 소요되는 데 비해,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까지는 1,000달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까지는 1,200달러 정도 소요)
- 우크라이나에 생산 공장을 따로 지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음.
 - 모스크바나 여타 CIS 등지에 생산공장이 있으면 대부분 지역 커버 가능할 것

○ 생산 공장도 이제는 더 저렴한 비용을 찾아 이동하고 있는 상황

- CIS 지역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고 있음.

- 스페인 소재 냉장고 공장도 가격 경쟁력 떨어져 폴란드 등지로 이동

8. 모스크바 대학 과학기술 파크, 인큐베이터 센터

□ 개요

○ 방문 일자 : 12월 15일, 오후

○ 면담자 : 조운동(구 대우통신 우크라이나 사업 담당)

□ 주요 면담 내용

○ 우크라이나에서의 오랜 생활 경험에 따른 현지 ICT 분야 진출 유망 분야 협의

○ 당초 우크라이나 통신 교환기 사업 진행

- 케이블 노후화 등으로 교체 필요

-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정 문제로 착수조차 못함

○ 일반 통신 분야 사업 여건은 좋지 못함.

- 모바일 사업은 포화상태

- 인터넷도 많이 보급된 상황이며, 사업자도 10여사 정도 됨.

- 그러나 주요 상업지역에만 보급되어 있고 지방은 중계기, 라우터 등의 시설 설치 비용이 부족하여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실제로 지방의 인터넷 보급률은 높지 못함.

- 사용료도 과거 종량제로 높은 사용료 지급. 지금은 정액제로 변경 되었으며 저렴.

- 통신망 개선 사업도 쉽지 않음.
 - 유선망 사업의 전국적 확대는 불가능할 것. 교환기와 선로 등이 모두 노후화
 - ADSL 등으로 직접적인 업그레이드 필요하지만 선로 때문에 제약이 많음.
 - 아직은 모바일 사용료 많음.

- 중소기업 측면에서 진출 유망분야
 - IPTV
 - 콘텐츠
 - 전자상거래
 - 인터넷 병원 시스템, 의료 장비, 가정용 의료 기기
 - 전자계산기기(상점 현금 지급기)
 - 스마트폰용 앱 등